



4·3행방불명인 유족들이 3일 제주지방법원에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접수했다. 이들 유족들은 “긴 세월 억울함을 참고 견뎠지만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만기자

“긴 세월 참고 견뎠지만 더이상 못 기다려”

4·3 행방불명인 수형자 10명 유족 어제 제주지법에 군사재판 재심 청구

70여년 만에 억울함을 풀 제주4·3수형 생존인에 이어 이번엔 ‘행방불명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3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방불명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는 협의회 소속 제주, 경인, 대전, 영남, 호남위원회 별로 유족 2명씩 총 10명의 명의로 이뤄졌다.

유족회는 재심 청구서를 통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대부분 농사를 짓던 청년들이거나 20대가 되지 않은 소년”이라며 “하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중산간마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가정 아래 영장도 없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 받거나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일부는 형무소에

서 병사했고 일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경에 의해 죽거나 분배 암매장되면서 그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필문 회장은 “4·3특별법이 통과되면 명예회복은 물론 배·보상도 이뤄지겠지만 국회에서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어 이렇게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며 “긴 세월 억울함을 참고 견뎠지만 이제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4·3 당시 작성된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1948~1949년 이뤄진 군법회의를 통해 2530명에 이르는 도민이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다.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공소각각’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이낸 생존수형인 18명 역시 이 수형인명부에 포함돼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10대 아동 상대 몸쓸짓 태권도 부사범 징역 12년

10대 아동을 상대로 몸쓸 짓을 저지른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도내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A군(2015년 당시 11세)과 B군(당시 9세)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하는 등 몸쓸 짓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휴대전화용을 이용해 A군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보호하기는 커녕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전 남편 살해 30대 “시신 바다에 유기”

경찰 여객선 CCTV 유기 장면 확보... 해경 함정 투입 수색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36·여)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가기 직전 대형마트에서 다량의 종량제 봉투와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행적도 드러났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고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여객선에서 시신을 바다로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여객선은 제주에서 완도로 향하는 선박으로,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출항했다.

경찰은 고씨가 여객선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을 담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CCTV영상과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변사체 수색

요청’을 했다. 현재 해경은 현재 3012함 등 함정 6척을 동원해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가기 직전까지의 행적도 포착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2시간여 전인 이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 들러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입한 가방은 앞서 27일 강씨가 펜션을 나올 당시 CCTV에 포착된 가방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간 뒤에도 곧바로 거주지인 충북 청주시로 향하지 않고, 전남 무안과 영암, 경기도 김포 등을 거쳐 지난달 31일에야 청주에 돌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박기남 동부경찰서장은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1차 진술에서 고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탐미를 잡혔다.

제주지방법원은 4일 오전 11시쯤 고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고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식기자 ik012@ihalla.com

신호·과속 단속장비없어 ‘위험천만’ 안덕면 화순사거리 교차로 최근 교통사고 빈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사거리 교차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신호체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사거리 교차로. 적색신호등에 멈춰선 한 차량이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보이지 않자 슬그머니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했다. 또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주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교차로내 교통사고가 우려되지만 단속장비가 없어 신호위반과 과속이 횡행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쯤 해당 교차로에서는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직진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출원한 119에 의해 도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1일에는 해당 교차로에서 1t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박모(37)씨, 승합차 동승자 윤모(63)씨 등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주민 이모(59)씨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최근 들어 화순사거리 교차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차로에 무인 단속장비를 설치하거나 (교차로에 대해)구조적 변경을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 설치의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시가 합동 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향후에 점검 시 화순사거리 교차로를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설치유무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도내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2016년 339건(1명 사망 554명 부상) >2017년 335건(3명 사망 538명 부상) >2018년 391건(659명 부상)이 발생했다.

이태운기자 lty9456@ihalla.com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호체계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태운기자

부주의 화재 10건중 3건 ‘불법 소각’

도소방본부 최근 3년 분석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에서는 3일 현재 107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단속 강화와 함께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려면 반드시 행정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근절에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 완효적 질소비 효과
- 선충 밀도의 저하
- 토양소독 효과
- 유기물의 부숙 촉진
- 식효효과
- 토양곰팡이 살균 방제효과
- 잡초의 경감
- 가축의 기생충 방제
- 토양의 비옥화
- 토양 미생물 활성화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중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탄비료 관용 염기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선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관강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